

아프리카인사이트

AFRICA
INSIGHT

10 주 년 기 념 에세이집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

아 프리 카 인 사 이 트

10 주 년
기 념
에 세 이 집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

글쓴이



강예린

아프리카에 폭 빠져 국제개발협력에 뛰어들었고,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안에서 교육, 인권, 평화라는 주제를 공부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교육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기술을 사용해 더 많은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의 다양한 종류의 생명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가닿기를 바라며 일합니다. 한 명의 반려인간, 두 마리의 반려동물과 인왕산 곁에서 살고있습니다.



안지혜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20대 초반엔 청년단체 활동, 소셜벤처 창업을 통해 국제개발 협력과 지속가능한 자립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현재는 주로 사람을 향했던 눈을 지구와 비인간동물에게까지 확장해 나가며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길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여전히 출세와 연대 사이 어느메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언제까지고 평등하지 못한 것, 차별에 관한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 높여 용감하게 연대할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독려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자리에 앉고 서고, 소리쳐야 할 때 소리치고, 소비하지 않아야 할 것을 소비하지 않으며, 계속 읽고 듣고 씁니다. 이 모든 행위의 끝에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우승훈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가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아프리카덕후이자 다른 세상을 찾고 기록하는 국제개발협력 연구활동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서 국제개발협력 일을 하고,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이 좋은 것을 나누려고 글을 씁니다. 아프리카 여기저기서 밥 시간이 되면 나는 은은한 탄내를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짐을 머리에 이거나 자전거에 싣고 끝이 안 보이는 길을 어쨌든 걷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작은 가게 처마 아래서 사람들과 함께 비를 피한 추억을 자주 꺼내봅니다. 마음은 언제나 아프리카에 있지만, 일상의 많은 시간은 서강대학교 어딘가에서 발전에 관해 공부하거나, '공부해야 하는데...' 걱정하며 보냅니다. 작년에는 그간의 경험과 공부, 고민을 모아 <내일을 위한 아프리카 공부>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목차

최동환	아프리카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4
델라 쾰메	나를 넘어 아름다운 변화로	8
멜 홀	사람, 아프리카인사이드의 변치 않는 핵심	16
도은주	“있는 그대로” 만나는 더 넓은 세계	24
설지예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단단한 연결의 힘, 사랑방 아인	32
권덕용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창회	40
허현주	우리는 서로의 자랑거리	48
한승운	지혜(Insight)를 갖고 사랑(Contribution)할 수 있다면	56
수잔	정확한 도구가 친절한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64
모세	좌절하거나 화내는 대신, 희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72
허성용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	80

최동환



아프리카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아프리카인사이트’ 10주년에 즈음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다양한 아프리카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 아프리카를 존중하고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함께 하기 위해서, 허성용 대표와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프리카인사이트를 창설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14억 인구 중 70%가 30세 이하인 젊은 대륙이며, 2050년에는 25억 인구가 전 세계 4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고민할 때, 아프리카의 15-65세 생산인구는 10년 안에 10억명에 달해 미래 노동력도 미래 시장도 모두 아프리카에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아프리카는 경제 성장률 3.8%로서 전세계 평균인 3.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4%, 2024년 4.3% 성장률이 전망되는 지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니켈, 코발트 등 4차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2021년 1월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가 출범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의 1/4이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3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54개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도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그 전략적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5억 에이커(202만km²)의 비옥한 땅이 아직 농경지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과 그와 관련된 생산 및 관리산업이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Mauro Guillen 와튼스쿨 교수가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아프리카는 지난 세기에 유럽과 아메리카 및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농업 및 산업의 이중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듯이,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대륙입니다. 가까운 장래 온 인류에게 화급하게 대두될 식량 부족 및 물 부족,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제반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공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프리카가 소중하고 동등한 파트너임을 새삼 자각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인사이트가 창립 이래 구호로 삼은 ‘아프리카 바로알기’, ‘아프리카 존중하기’, ‘아프리카와 함께하기’ 운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과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우분투’ 정신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아프리카의 지혜입니다.

아프리카인사이트는 이러한 두 가지 아프리카 정신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인식 개선’, ‘권리 옹호’, ‘역량 강화’, ‘교류 협력’, 네 가지 미션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인식 개선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과 애드보커시, 권리 옹호를 위한 차별반대 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아프리카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 및 YES 프로젝트, 교류 협력을 위한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등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내실을 다지면서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프리카인사이드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특히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아프리카의 지혜와 역사의 가르침에 유념하면서 미래 행동 지향적인 아프리카인사이드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프리카인사이드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아이너’ 및 활동가, YES 프로젝트 후원위원회 정해정 위원장 및 위원님,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허성용 대표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과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드 이사회 이사님 및 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11. 30.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드 이사장 최동환



| 델라 쿨메 |

Dela Quarme

나를 넘어 아름다운 변화로

“아프리카인사이드의 매력은 아프리카인사이드가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직접 아프리카와 자신을 대표하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델라 퀘메(Dela Quarme) 님에게 아프리카인사이드(이하 ‘아인’)의 매력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델라 님은 2018년 가나에서 한국으로 유학 와 2019년부터 아인과 인연을 맺었다. 얼마 전엔 화학공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델라 님의 말처럼 “주체적인 아프리카”를 꿈꾸는 아인은 국내의 아프리카 커뮤니티와 폭넓게 협력하고, 2020년에는 이들과 함께 African Voices in Korea(AVOIK)도 런칭했다. 그렇게 아인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나는 곳엔 언제나 델라 님이 있었다. 국내 가나 유학생 커뮤니티 GHASKA의 대표를 맡기도 했던 델라 님은 African Youth Action Forum(AYAF), 한-아프리카재단의 각종 청년 활동, 그리고 AVOIK 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아프리카가 의존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프리카인사이드는 아프리카를 다른 여느 대륙처럼 특별한 이야기와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소개하는 일을 선뜻 맡았어요. 아프리카 출신인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잘 안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예요. 저는 아프리카인사이드가 이렇게 이타적으로 자신을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지원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델라 님이 다르고도 먼 나라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대단해 보였다. 델라 님에겐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끄는 게 자연스럽다. 한국에 오기 전 델라 님은 Lead for Ghana라는 NGO의 교육활동가로 시골에 파견되어 아이들을 만났다. 대개 자원활동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지만, 델라 님이 경험한 자원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다. Lead for Ghana를 통해 파견된 청년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도 했지만, 익숙한 도시와는 다른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 앞으로 무엇을 하든 늘 이러한 다름과 격차를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

한국에 온 이후로도 델라 님은 교육활동을 이어 나갔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학생들이 외국인과의 소통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왔다. 처음엔 조용했던 학생들이 게임이나 운동 이야기를 통해 공통점을 찾아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델라 님과 가나의 시골 학생들, 수원의 고등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구분을 넘어, 출신을 넘어, 그리고 언어를 넘어 함께 하는 교실을 만들 수 있었다.

“어디서든 교육은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언어는 바로 마음의 연결 (rappont)이에요. 교사와 학생의 경계를 넘어 두 세계가 합쳐질 때, 우리가 학생들과 연결되고, 학생들이 우리와 연결될 때 교실은 작은 가족이 되고, 그게 바로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인 또한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한다. 델라 님은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다. 만약 내가 아프리카 국가 출신으로 이역만리 한국에 방금 도착해서 고향이 그립고, 친구를 사귄 곳이 필요하고, 친밀함을 느낄 곳이 필요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델라 님은 아인이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결하고, 나아가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 사람과 한국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한 덕분에 국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더 잘 적응하고, 한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델라 님은 교육만큼 리더십에도 관심이 많다. 델라 님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토론 동아리 대표를 맡으며 리더 역할을 처음 경험했고, 이후 리더십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리더 자리를 맡았던 델라 님은 한국에 와서도 대전 지역 가나 학생 대표를 거쳐 GHASKA 전국 대표를 맡기도 했다. 리더십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리더 자신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것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리더에 관한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답을 내놓았다.

리더 자신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수수께끼의 앞부분은 이타심을 의미한다. 델라 님은 가나를 위해 화학공학을 전공으로 택했다고 한다. 델라 님이 진로를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절, 오랜 탐사와 연구, 유전개발 끝에 가나에서도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가나가 이 원유를 더 값지게, 가나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선 원유의 활용도를 높일 화학공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리더는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는 내려놓아야 해요. 이타적이어야하죠. 저는 GHASKA의 대표를 맡기 위해 한국에 온 것도, GHASKA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고 가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서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가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초대 대통령 콰메 은쿠루마(Kwame Nkrumah)는 100년, 그 이상을 내다본 리더다. 임기 동안 은쿠루마 대통령은 지금도 가나의 전력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대규모 댐을 건설했고, 가나의 진정한 독립은 아프리카 전체의 해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2021년이 되어서야 현실화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반세기도 더 전에 역설하기도 했다. 그런 은쿠루마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리더로 꼽은 델라 님도 가나의 원유 생산 소식에 그 너머를 상상했다.

리더십은 사람이 아닌 리더에 관한 것이라는 수수께끼의 뒷부분은 실천에 관한 것이다. 델라 님은 리더로서 사람들이 변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어찌면 남을 바꾸는 것 보다 자신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에 이를 실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끝은 아름다울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며 델라 님은 특유의 꿈꾸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길 원한다면 리더가 먼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찍 오길 바란다면 리더부터 일찍 와야 해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들은 먼저 나에게서 그 변화를 봐야 해요. 쉽진 않죠, 그 과정은 꽤 어지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아름다울 거예요.”

개인적인 이해를 넘어 나부터 실천한다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 델라 님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 우분투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꿈꾼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그런 꿈과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만 같다. 델라 님도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부터 한다며,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었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내 특유의 낙관론으로 돌아온 델라 님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꽃피게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모두 미소를 퍼뜨리는 리더가 되자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사람들은 흔히 아프리카가 의존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죠.
아프리카인사이트는 아프리카를 다른 어느 대륙처럼
특별한 이야기와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소개하는 일을 선택했었어요.
아프리카 출신인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잘 안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아프리카인사이트가 이렇게 이타적으로 자신을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지원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



| 멜홀 |

Mel Hall

사람, 아프리카인사이드의 변치 않는 핵심

멜 홀(Mel Hall) 님은 여러 문화로 가득 찬 바다를 유명하듯 사는 사람 같았다.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를 모두 쓰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를 쓰는 모로코 베르베르 가정에서 자란 멜 님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멜 님에게 다른 언어는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 마치 책을 읽거나 여행하는 것처럼 멜 님은 언어를 통해 다른 언어권의 문화와 역사,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았다. 성인이 될 무렵 멜 님은 언어를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언어학에 진학했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된 멜 님은 아프리카인사이드(이하 ‘아인’)를 만나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인턴으로 마케팅과 대외협력 활동을 함께했다. 지금은 고객관리 솔루션 회사 소속으로 벨기에 브뤼셀과 아일랜드 더블린을 오가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멜 님은 이렇게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접하고, 그동안 당연하게 하던 일을 다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경험에서 행복을 느낀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은 NGO 일과는 꽤 다르지만, 국제적인 환경인 점은 비슷해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체감하고, 다양한 의견과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저는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처럼 멜 님도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직장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편견과 걱정은 아인 출근 첫날부터 녹아 사라졌다. 아인은 물론 늘 바쁘고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했고 처음 온 멜 님에게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아낌 없이 제공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멜 님은 아인의 조직 문화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한다. 출근 첫날 오후 5시에 일을 마치고 함께 피자를 먹으며 환영식을 했던 일,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받았던 일, 모두에게 영어가 가장 편한 언어가 아니었음에도 영어로 소통하며 멜 님을 소외시키지 않으려 했던 일. 이런 기억을 가지고 멜 님은 지금도 당시 동료들과 연락하며 지낸다. 아인 동료들은 멜 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었냐고 묻자 멜 님은 아인의 열정이 전염되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아프리카인사이드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아프리카인사이드의 그 누구도 그곳에 우연히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프리카인사이드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위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 넘치는 곳에 있으면 그 열정이 전염돼요. 그곳의 일부가 되고 싶어지고요, 제 흔적을 남기고 싶어져요.”

멜 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온전함(integrity)이고, 아인도 온전한 조직이라 좋았다고 한다. 온전함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본질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멜 님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음직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고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만큼 믿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멜 님은 아인에서도 이런 온전함을 보았다. 멜 님이 느낀 아인의 핵심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아인이 하는 캠페인 중에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캠페인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아인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인 ‘빈곤 극대화 모금 광고 반대 캠페인’을 언급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큰 단체들조차도 빈곤 극대화 모금 광고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인은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치고, 정체성을 파먹고, 누군가의 아주 내밀한 순간을 찍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행동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는 점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아인이 하는 일 중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일도 있다. 멜 님은 지금 살고 있는 유럽을 포함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아주 낡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늘 전쟁을 겪고, 기아에 시달린다는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아프리카만큼 문화, 민족, 언어, 역사, 기후가 다양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모로코 출신 부모님을 두었지만 벨기에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도 유럽

에 살고 있는 멜 님에게 아프리카 정체성이란 무엇인지가 문득 궁금해졌다. 멜 님의 답변은 간단했다. 아프리카 정체성은 노력해서 증명해야 하는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아프리카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듯 멜 님도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란 것이다. 멜 님은 한국에 있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을 아프리카 사람으로 소개했더니 상대방이 “정말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정체성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 구태여 설명하거나, 어떻게 보도록 노력하거나, 어떻게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나고 자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엔 아프리카에 관심도 없고 그곳의 삶이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일까요? 제 답은 ‘100% 그렇다.’입니다. 저는 벨기에 사람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하고, 모로코 사람이기도 하고, 베르베르 사람이기도 하죠. 누군가 다시 ‘그래서 넌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답할 거예요. 제가 꼭 한가지로 정의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진 비율에 관한게 아니에요. 제가 50% 벨기에 사람이고 50% 모로코 사람인게 아니라, 100% 모로코 사람이면서도 100% 벨기에 사람인 거예요.”

자칫 불편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였지만 멜 님은 아주 멋진 질문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히려 모르는 것은 질문과 설명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환영한다고 했다. 멜 님은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 세계에 대해 배우고 시야를 넓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길 희망한다. 이런 세상에서는 무지도, 실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요즘 유럽은 누군가 실수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뛰어들어 모욕하고 물어뜯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멜 님은 질문을 두려워 않고, 또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 않는 세상을 위해 자신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인을 지지해주길 요청했다. 아인을 지지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이 인터뷰 글을 포함해 아인의 글을 공유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는 것, 아인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 호기심을 가지고 아인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도,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후원을 하는 것도 모두 아인을 지지하는 방법이다. 멜 님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아인을 만나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리고 여전히 아인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자신과도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아프리카인사이트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아프리카인사이트의 그 누구도 그곳에 우연히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프리카인사이트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원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 넘치는 곳에 있으면 그 열정이 전염돼요.
그곳의 일부가 되고 싶어지고요,
제 흔적을 남기고 싶어져요.

”

도은주



“있는 그대로” 만나는 더 넓은 세계

오랫동안 한국 출판계에서 아프리카는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프리카에 관한 책, 특히 한국 작가가 쓴 책이 많이 나왔다. 그 중심에는 출판 편집기획자 도은주 실장이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와 함께 기획하고 편집한 “있는 그대로” 시리즈가 있다. “있는 그대로” 시리즈의 첫 책은 르완다였고, 지금은 7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12개국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어릴 적 은주 님은 바다 건너에 관심이 많았다. 가요보다는 팝송이, 한국 피자보다는 미군 부대 피자가, 그리고 어머니가 도깨비시장에서 사오는 미제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 20대 후반엔 결혼은 언제 하냐는 부모님의 성화에 30대엔 외국에서 살리라 마음먹기도 했다. 그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게 되면서 한국 생활을 하는가 했더니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 두바이로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은주 님의 노마드적 삶이 시작되었고, “있는 그대로” 시리즈의 씨앗도 싹텄다.

“첫 번째 주재국이 두바이고, 그 나라에서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교성 좋은 아들 덕분이었지요.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튀니지, 팔레스타인, 요르단, 수단 등 한국에서는 절대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바이에서 5년을 살고 돌아왔을 때 은주 님은 출국 전 출판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았던 언니의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잘 알려진 나라 주변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나라를 소개하는 “세계 나라” 시리즈를 기획했다. 은주 님이 두바이에 살며 편견을 넘은 경험에서 우러난 기획이었다. 마침 학교에서도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시기도 좋다고 생각했다. 은주 님은 세계 전도를 가지고 출판사 사무실로 갔다.

“두바이에 간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전했을 때 부러움보다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열사의 나라다, 치안이 안 좋은 나라다, 현지인들이 동양인들을 해코지한다 등등 우려를 많이 해주었지요. 그런데 두바이에 가보니 웬걸요? 한국보다 깨끗하

고, 어디를 가도 사람 부대길 일 없고, 교통 체증도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했고 뭐든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여름엔 50도가 육박하는 날씨가지만, 에어컨 덕분에 시원한 건물에서 차를 타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한여름에도 긴팔 옷은 필수였지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글로벌한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은주 님은 아인을 만나며 또 한 번 편견을 깨는 경험을 한다. 오랜만에 현업으로 복귀한데다 은주 님도 시리즈물 작업이 처음이었기에 초반 “있는 그대로” 시리즈는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원래는 아시아부터 시작하려고 저자들을 섭외했지만 잘되지 않아 기획 의도와 잘 맞는 다른 대륙,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고, 그때 아인을 처음 만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를 자선 단체를 통해 접하며 원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던 은주 님은 아인과의 만남 덕분에 아프리카를 공생의 관계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 시리즈 기획에서 아프리카의 비중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은주 님의 기획을 들은 아인 허성용 대표도 “이 세상에 반드시 나와야 할 필요한 책”이라며 흔쾌히 손을 내밀었고, 은주 님과 아프리카 각국을 소개할 사람들을 연결해주었다. 그렇게 르완다 경험이 있던 키자미테이블의 엄소희 대표님을 만났고, 2021년 8월, 기획 3년 만에 시리즈 첫 책인 <있는 그대로 르완다>가 세상에 나왔다.

아프리카 각국의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오늘날의 이슈 등을 다루는 “있는 그대로” 시리즈는 누가 읽어도 좋지만, 특히 청소년이 주요 독자다. 두바이에서, 그리고 지금은 인도에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한 은주 님은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가 세상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혀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 누구와도 편견 없이 어울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꼭 다른 나라에 가봐야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은주 님은 이 소망을 “있는 그대로” 시리즈에 담았다. 이 시리즈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한 나라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고루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작가가 보내온 원고에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나 단편적인 모습만 담긴 경우에는 새로운 모습, 한국보다 더 나은 모습도 다루길 요청했고, 더 많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나 여성의 이야기를 더 담길 요청하기도 했다.

“시리즈의 저자를 섭외할 때 기준은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이거나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의 현지 생활을 해보아야 곱씹기가 아니라 진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에세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외서는 전문적 지식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그대로” 시리즈는 에세이와 전문 서적 사이에 있는 교양서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현지 생활을 해본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느낀 점의 비중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나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역사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현지 미디어 자료와 현지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참고하여 콘텐츠를 구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시리즈”는 교양서로서 독자들에게 해당 나라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끔 한 후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인을 포함해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겐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마치 넘어서야 할 산처럼 느껴지곤 한다. 하지만 은주 님에게 편견과 선입견은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에 편견이 있는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무관심한 사람 중 누가 <있는 그대로 에티오피아>에 손을 뻗을지 생각해보면 편견에서도 희망을 보는 은주 님의 이야기가 쉽게 이해된다.

시리즈물은 특성상 “모 아니면 도”이기에 은주 님도 “있는 그대로” 시리즈의 첫 책이 나올 때까지도 결과를 걱정했다. 다행히도 첫 책 <있는 그대로 르완다>의 반

응이 괜찮았고, 덕분에 이후 책들의 출간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서점 판매량이 특출나게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 도서관의 구입 장서 목록에 꾸준히 들어갔고, 언론과 해외업무를 하는 단체들도 시리즈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겠다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시리즈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시리즈의 저자를 섭외할 때 기준은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이거나 현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의 현지 생활을 해보아야 곁핳기가 아니라 진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에세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외서는 전문적 지식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그대로” 시리즈는 에세이와 전문 서적 사이에 있는 교양서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

| 설지예 |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단단한 연결의 힘, 사랑방 아인

아름다운가게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의 사회적기업센터 팀장으로 재직 중이신 설지에 아이너(아프리카인사이트를 정기 후원하는 후원자를 지칭하는 표현)를 만났다. 코이카 인턴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살다 온 1년의 시간이 지에 님의 삶에 깊게 자리 잡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다. 그 시기에 한참 국내외에서 ‘개발’이 아닌 ‘발전’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었고, 지에 님은 그 발전 담론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아름다운가게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 어렵פות이 발견했다.

“아프리카인사이트도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그 사람들끼리 연결되잖아요. 아름다운가게도 그랬어요. 자원활동가들이 모이는 그 가게의 공간을, 좀 진부하지만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면서 오고 갔어요. 가게에서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활동천사님들 많이 만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기부하러 오시는 분들,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등 다양한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과 연결되어 이야기하면서 저는 연결되는 것의 힘을 조금씩 발견했어요.”



각 개인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가게의 ‘사랑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꿰어지는 모습에서 지예 님은 다른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예 님은 기억나는 시간으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한 1박 2일 워크숍을 꼽았다. 전역의 100여개 매장에서 활동하는 활동천사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활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발견하고 소개하고, 이 일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을 함께한 활동천사님들이 발언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가게의 활동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 이들이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이것이 변화-임팩트로 이어졌다는 생각이었다. 지예 님은 ‘커뮤니티 기반의 연결성’의 중요함을 분명히 인지했다.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이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의 성격과 썩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작은 활동들이 연결되어서 어떤 결과로 모아지는 순간들을 보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에 님에게는 이러한 국내에서의 연결이 해외로 확장되는 짜릿한 경험도 있다. 아름다운가게 활동가 중에서 네팔에서 오신 치즈만(Chijman Gurung) 활동가님이 계셨다. 치즈만(Chijman Gurung) 활동가님은 아름다운가게 활동을 지속하시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국에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팔로 돌아가서 아름다운가게와 동일한 모델로 2015년에 ‘수카워티 스토어’라는 재사용가게를 설립했다.

“저희 국제개발협력을 생각하고 해외 국가들의 다양한 파트너분들을 만나면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세르파(네팔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현지인) 출신의 평범한 시민이셨어요. 이분이 아름다운가게 활동을 경험하고 나서 거침없이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사람들의 참여,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경험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발견했어요.”

지에 님은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가 잘하는 일이 바로 이 ‘연결’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아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결과이자 증거라고 설명했다. 아인의 지난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겠다’의 탑-다운(Top-Down)형태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셔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활동가분들, 파트너기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들을 쌓아나가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에 님은 이 방식이 상당히 ‘세련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구조를 단단하게 갖춘 큰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단단한 연결이라는 더 멋진 결과를 가져왔다.

지에 님은 대표적인 활동으로 단연 ‘YES 프로젝트’(Africa Young Entrepreneurs Support Project)를 언급했다. 지에 님은 아인의 케냐 YES 프로젝트에 아

름다운가게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담당자였으며, 함께 케냐 현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아름다운가게 펠로우십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지예 님은, 10여년이 지속된 가게의 펠로우십 활동을 통해 국내에서 임팩트들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았다. 하지만 이 임팩트가 해외로 확장되는 현장을 직접 본것은 YES 프로젝트가 처음이었다. 케냐 창업자들의 에너지에서 많은 힘을 받았다. 그리고 아인에서 현지 기반으로 사람들을 육성하는 방식이 앞으로 더 많은 임팩트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특히 1기 지원받은 분 중에 한 분은 주도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2기, 3기까지 공유하였다. 아름다운가게 펠로우십이 케냐의 창업가들에게 이어지고, 케냐 창업가들의 에너지가 다른 창업가들에게도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ES 프로젝트를 위해 지속적인 펀딩 마련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YES 프로젝트가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펀딩으로 연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름다운가게에서도 펠로우십 사업은 모금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사업을 보면, 장기적인 임팩트가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분들에게 설명했을 때 즉각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나 봐요. 그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예 님은 펠로우십 사업의 중요성과 힘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발견하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적기업센터 팀장을 맡은 지예 님은 많은 단체의 대표들을 만났다. 경제적인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셜미션의 확장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펠로우들을 만나면서 ‘이게 우리 펠로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랑스러웠다.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임팩트를 키워나가는 일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에 님은 아인이 그 임팩트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참여의 문턱을 낮추었다”고 말했다. 지에 님은 누군가는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 큰 재능이 있거나 큰 기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작은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아인은 여러 방면으로 그 참여의 장을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그 계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의미를 쌓아가는, 멋진 사랑방이 되는 아인이 되길 응원한다며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 주셨다.





지에 남은 아인이 잘하는 일이 바로 이 ‘연결’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아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결과이자
증거라고 설명했다. 아인의 지난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겠다’의
탑-다운(Top-Down)형태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셔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활동가분들, 파트너기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들을
짚어나가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 권덕용 |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창회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리카인사이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에 딱 네 명이 있는거예요. 저도 모르게 꽤 크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기린(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이 회의실로 안내해줘서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프리카인사이트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소한 것부터 큰 사업까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네 명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런 에너지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배우겠다 싶었죠.”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에서 2년 반의 시간 동안 활동가로 함께한 권덕용 아이너는 아인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 순간을 설명하는 덕용 님의 눈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덕용 님은 첫 만남의 순간 질투의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인 직원들의 에너지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길래,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에너지로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덕용 님은 그날로 아인의 활동가가 되었다.



덕용 님이 아인을 처음 찾은 것은 세네갈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세네갈에 파견되어 컴퓨터 교육 분야로 2년 동안 단원 생활을 했다. 사는 환경은 한국보다 여러모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재미있었다’라는 감정이 강했다. 처음 세네갈로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거기 사람 사는 곳이야?’라며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했다. 한국에서의 삶과 꽤 다른 2년의 시간이 덕용 님에게는 즐겁고 푸근한 기억으로 남았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많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아프리카’라는 키워드로 한국에서 모일 곳을 찾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돌아와서는 세네갈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을 알고 싶었고, 주변 단원들에게 아인을 소개받아 찾아갔다.

“아프리카인사이드는 아프리카에 향수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구심점이 되죠. 동창회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인사이드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죠. 아프리카인사이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가 나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덕용 님은 아인에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를 향한 ‘향수병’을 치유해나갔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나눴다. 덕용 님은 아인이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의미하다고 느꼈다. 여전히 아프리카를 가난하고 무기력하게 이룸짓는 행위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아주 근본적인 일이라고 느꼈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국가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들이 아인의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었다.

덕용 님은 특히 아인이 이 이슈를 풀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당장 눈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홍대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을 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했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을 통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중들과 만났던 모든 시간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씩 쌓여서 아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다.

더불어, 뉴스, 기사, 유명인들의 발언 중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강화하는 지점들을 조명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애드보커시 활동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하고, 그 일을 아인이 해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아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제 꿈은 세계평화예요. 제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룰 수는 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간이 되는 곳이 아프리카인사이트예요.”

아인이 만들어 낸 변화가 무엇 같냐고 물었을 때, 덕용 님은 당장 눈에 띄 만한 영향력이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인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그리고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인이 어떤 가치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뉘지고, 시너지가 형성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세계평화가 꿈이라는 덕용 님은, 아인이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에 마음을 모을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곳이기에, 아인의 영향력이 눈앞에 크게 펼쳐지진 않지만 사실은 크다고 믿었다.

“저는 아프리카인사이트가, 어떤 ‘일’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덕용 님은 아인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존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결국에 변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어준다면 아인이 우리가 만들 변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

저는 아프리카인사이트가,
어떤 ‘일’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요.

”

허현주



우리는 서로의 사랑거리

허현주 후원자님은 사회복지사로 20여년을 일하셨고,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의 4년째 후원자다. 아동센터, 자활센터,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 초등학교 때 아동센터를 다니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동생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이지 뿌듯하고 기뻐다. 반면에, 아이들이 종종 “우리 때문에 선생님들이 돈 버는거 아니냐”며,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아마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졌다.

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지원을 받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분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자립에 성공한 다음에 몇 년이 안되서 돌아오는, 다시 도움이 필요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일을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이들도 마주했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족과 사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고민들이 쌓여갈 즈음, 딸을 통해서 아인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을 통해서 아프리카인사이트를 알게되었어요. 딸이 관심을 가지고 있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죠.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는데,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빈곤 극대화 광고 관련해서 아프리카인사이트가 하는 행사도 여러번 참여 해봤어요. 빈곤 극대화 광고, 그런 거 저도 몰랐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수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시누랑 종종 같이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에 놀러가고 그랬어요. 신선한 관점으로, 사람들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게 참 좋았어요.”

현주 님은 아인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단체들은 이미 많았고, 그 일 역시 소중하지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낄 즈음에 아인을 만난 것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빠르게 결과와 성과가 보이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공감을 얻어서 후원을 받기도 더 좋았다. 하지만 현주 님이 일하면서 계속 마주했던 것처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키우고, 사회의 인식을 건강하게 쌓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아인은 그 어려운 길을 확신에 차서 가고 있었다. 너무 매력적인 단체라고 생각하고 후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요. 간접적인 지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더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줘요. 대중들에게도 그게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아인의 후원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현주 님 자신이었다. “빈곤 극대화 광고”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다. 아인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고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게 문제라는 것에 동의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느껴졌다. 현주 님과 대화를 마치고 어느 날 보니 아인의 후원자가 되어있는 친구도 있었다.

“아프리카인사이트가 뭘 홍보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자체가 홍보거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대단한 청년들이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난 10여년간 아인에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거쳐갔다. 실제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단체에 쏟아부으며 단체를 쌓아올린 이들이다. 한 사람의 멋진 생각이나 리더십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아인의 10년을 만든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낸 멋진 청년들이 가득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대륙을 온 마음 다해 존중하고 싶어서, 인생의 시간을 떼어낸 이들 덕분에 아인의 10년이 있었다. 현주님은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그 청년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되어준 것, 그리고 함께 지금까지 온 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전해달라는 부탁에 현주님은 ‘초심’을 이야기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아프리카인사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초심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인사이트를 사랑했던 첫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후원을 했는데, 중간에 약간 마음이 안 든다고 딱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기다려줘봐요. 응원도 해주고요. 뭘 잘못하면 차라리 말해 주고, 물어보면 좋겠어요. 오히려 채찍을 줄 수도 있겠어요.”

아인은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었다. 응원도 주고, 채찍도 주었던 이들 덕분이었다. 그 마음을 꼭 지켜달라는 현주 님의 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같이 아인을 만들어가자는 말과 같지 않을까.



“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아프리카인사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초심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인사이트를 사랑했던 첫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후원을 했는데,
중간에 약간 마음이 안 든다고 딱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기다려주세요. 응원도 해주고요.
뭘 잘못하면 차라리 말해 주고, 물어보면 좋겠어요.
오히려 채찍을 줄 수도 있고요.

”

| 한승윤 |



지혜(Insight)를 갖고 사랑(Contribution)할 수 있다면

‘컨트리브랜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공익 기관 등)에게 사회적 어젠다(인권, 환경, 평화, 교육, 보건 등)를 주제로,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브랜딩,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를 제공하는 브랜드 회사이다. ‘컨트리브랜드’는 Contribution(컨트리뷰션)+Branding(브랜딩)의 합성어로 ‘브랜드를 통해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미션을 담았다. 이러한 미션 아래 활발히 사업 중인 3년 차 대표인 한승윤 님을 만났다. 지금은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와 끈끈한 인연을 가진 승윤 님은 ‘컨트리브랜드’의 설립 이전 아인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고 무려 6년(2016~2021)을 근속했던 최장기 근속 직원이다.

승윤 님이 아인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디자인을 전공한 동기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디자인 전문회사로 입사를 선택할 때 첫 직장을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디자이너는 왜 비영리 단체를 첫 직장으로 선택하게 됐을까?

승윤 님은 아인 입사 1년 전, 대학생 때 봉사 활동으로 시에라리온을 다녀왔었다. 원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아프리카에 처음 가게 되었다. 당시 시에라리온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다. 이 시간들은 승윤 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귀국 후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은 컸지만 국내에서 바로 아프리카와 관련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한국리더십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아인의 허성용 대표를 만났고, 그때부터 아인과의 긴 인연이 시작되었다.

“한번 들르면 좋겠다”는 허성용 대표님의 권유로 성수동의 아프리카인사이트 사무실에 처음 가게 되었어요. 당시엔 허성용 대표님이 아프리카인사이트에 혼자 있었을 때였는데, 단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매우 가치 있고 멋있어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잠깐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빠져나오질 못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다니게 되었네요.(웃음)”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계속 ‘도와줘야만’ 할 것 같아서였는지를 묻는 말에 승윤 님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몇 개월 못 갔다고 답했다. 아인에서 일하던 초반, 승윤 님은 이전에 시에라리온 방문 당시 자연재해와 에볼라를 겪고 있던 상황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실상을 여러 곳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인에서 일하고 또 여러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시에라리온을 넘어 아프리카 전체를 바라보고 경제적인 여건 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후 승윤 님은 아프리카를 세상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일할 때만큼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토론했던 열정 가득한 동료들이나, ‘YES 프로젝트’(Africa Young Entrepreneurs Support Project)를 위해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케냐를 방문해 현지에서 부대끼던 케냐 현지인 동료와 창업가들이나, 국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자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특별했다고 한다. 승윤 님의 말을 들으며, 도와준다는 마음보다는 아프리카를 위해 같이 멋진 일을 도모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인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것이 승윤 님의 진짜 근속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인터뷰 중간중간 승윤 님은 같이 일했던 동료가 보고 싶거나, 존경한다거나, 응원한다거나, 함께한 시간이 추억이고 자양분이 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추임새처럼 넣곤 했다.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했던 승윤 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순간으로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을 꼽는다. 승윤 님은 자신이 브랜딩하고 디자인하고 무대와 부스 배치까지 하나하나 신경 쓴 결과물들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축제 현장이 주었던 웅장하고 신비했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짧은 시간의 대화로 승윤 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다운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승윤 님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롭고 멋진 것을 만드는 일을 좋아했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이나 만화를 그리거나, 책을 만드는 활동을 좋아했어요. 그걸 알아봐 주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진로로 미술 전공을 제안해 주셔서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고, 대학 진학해서도 이것저것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고요. 아프리카인사이트에 입사해서도 사업을 브랜드로 만들거나, 단체에 필요한 디자인 그리고 아프리카인사이트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들어 내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창작을 좋아해도 일로 하면 언제나 재밌을 수는 없다. 지난 2년 간은 ‘컨트리브랜드’를 창업하여 정신없이 일을 하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바닥부터 조직을 일궈 온 허성용 대표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도,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며 새로운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지점이 본인에게 가장 맞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수줍게(?) 표현하는 승윤 님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도 정작 승윤 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사랑을 꼽는다. 조금 더 부연하면, 승윤 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승윤 님은 이 ‘사랑’을 그의 회사 이름에도 녹아 있는 단어로 한 번 더 해석한다. 공헌(contribution)이 그것이다. 승윤 님은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동시에 다 닿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을 통해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 ‘넓이’는 나와 상관 없다고 생각했던 아프리카 사람들까지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깊이’는 가까운 주변의 이웃과 가족에 대한 실천으로 살아 내려고 한다. 승윤 님 자신이 삶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지만, 사랑의 실천이 결국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승윤 님은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개인과 기관들이 이야기 하는 상생, 인권, 환경 이슈 등에 대해 그들의 노력과 활동 그리고 메시지가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창의력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는 아인과 함께했던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니즈를 고민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자 한다. 진정한 연대와 협력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면서.

어찌보면 승윤 님의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여정이 아닐까. 승윤 님을 인터뷰하며, 다른 누군가도 좋아하는 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아인을 만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그것들을 확장하면서 멋진 아프리카를 꿈꾸며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

그러면 승윤 님이 말한, 아인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가치 안에서 아인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만들어 낼 긍정적 변화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승윤 님의 말을 들으며, 도와준다는 마음보다는 아프리카를 위해 같이 멋진 일을 도모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인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것이 승윤 님의 진짜 근속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인터뷰 중간중간 승윤 님은 같이 일했던 동료가 보고 싶다거나, 존경한다거나, 응원한다거나, 함께한 시간이 추억이고 자양분이 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놓았다.

| 수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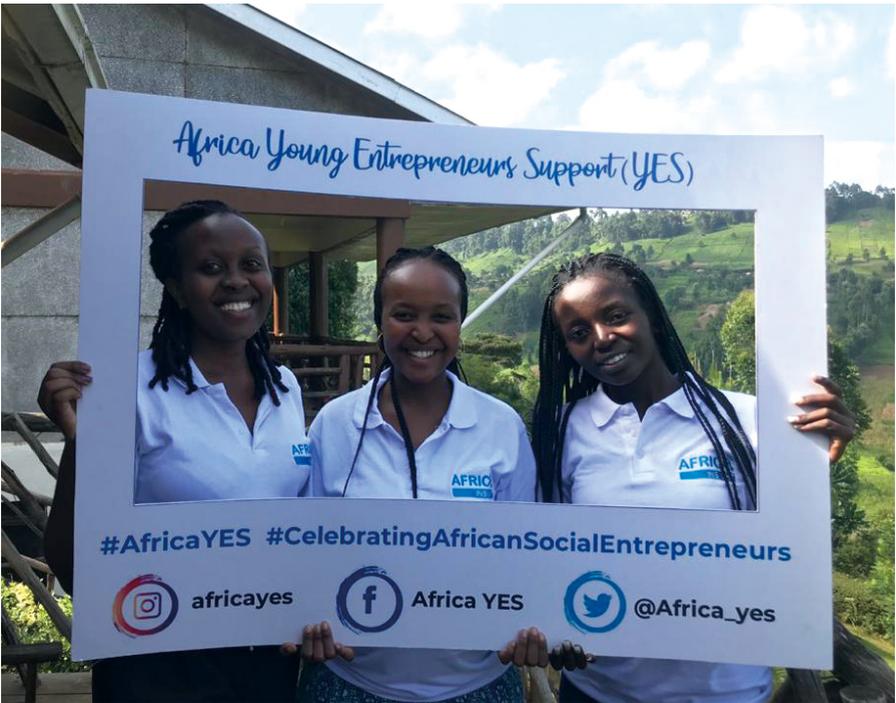
Susan



적확한 도구가 친절한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 이전에도 아프리카를 키워드로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가 국내에 존재했고, 지금도 여러 단체가 아프리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인이 남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지금까지 주로 집중해 온 사업의 영역 때문일 것이다. 아인은 ‘아프리카 대륙과 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비전으로 옹호 활동이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 국내사업 중심의 활동을 펼쳐 왔다. 그런 아인이 심혈을 기울여 주최하는 유일한 국제사업이 있다. 케냐 현지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YES 프로젝트’(Africa Young Entrepreneurs Support Project)이다.

‘YES 프로젝트’는 케냐 현지의 청년 기업가를 선발하여, 20주 간 캠프, 집중 교육, 멘토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후 사업발표회를 통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기업가에게 펀드를 포함해 맞춤형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기간과 밀도를 생각해 보면 케냐 현지의 파트너들이 없이는 해내지 못할 사업이기도 하다. 인터뷰 대상자인 수잔(Susan Mwihaki Maina) 님은 ‘YES 프로젝트’의 기초를 함께 닦고, 프로젝트의 실현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현지 파트너다. 육성 대상의 선발과 육성 후 창업가 대상 멘토링을 담당하며 아인과 관계를 빚어 왔다.



아인과 현지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일을 함께해 온 만큼, 수잔 님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연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었다.

“저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일을 주로 하고, 오랜 기간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어요. 어쩌면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을 알기도 전에 대학에서 다양한 자원활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업가정신을 내재화했던 것 같아요. 기업가정신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소외된 계층이나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조직을 설립했었던 거예요.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YES 프로젝트’ 케냐의 디렉터 아이작(Isaac Jumba)이 ‘YES 프로젝트’의 기획·운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함께 하기로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잔 님은 기업가정신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시절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풀어냈다. 15살의 수잔 님은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야 했고, 비즈 공예로 수공예품을 만들어 수입을 창출했다.

“저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일종의 취미이기도 했고, 누구도 저에게 돈을 벌라고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제 여정에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지속해서 다니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했던 소녀는 대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했다.

“대학에 다닐 때였어요. 학교가 국립학교였기 때문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동기가 있었는데, 자퇴를 고민하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어서 씨빅(Seebig)이라는 이름의 차마(Chama)를 만들었어요.”

수잔 님이 들려준 차마(Chama)는 한국의 계나 협동조합과 비슷한 구조로, 전통적으로는 케냐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이 서로 매달 조금씩 출자하고, 출자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금리 없이 대여하는 비공식적인 금융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잔 님은 씨빅(Seebig)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과는 다른 구조이지만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맞닿아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을 해석했다.

이때부터 수잔 님은 오바마가 출범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십 육성 이니셔티브인 ‘얌리(YALI, Young African Leadership Initiative)’를 통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인큐베이팅 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의 경영-기업가정신 관련 석사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해서 키워 왔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가 인터뷰를 내내 꽉 채운 가운데, 수잔 님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궁금해졌다. 역시 기업가정신일지 생각하며 던진 질문에 수잔 님은 친절(kindness)을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꼽았다. 매일의 삶에서 나이 차가 큰 사촌들과 놀아 주는 것, 그들의 고민과 걱정을 나누어 들고 가능하다면 재무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수잔 님의 대답을 통해 그녀가 말하는 친절이 최선을 다해 타인을 대하는 것을 뜻함을 엿볼 수 있었다. 수잔 님은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YES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서도 프로그램의 지원자들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발휘했다. 이미 설명된 것을 반복적으로 안내한다든가,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극진히 프로그램의 잠재 지원자들을 대했다. 또, 멘토링 과정에서도 창업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주지 않아도 되는 때에도 적합한 피드백을 주거나, 추가적인 자원을 쏟거나, 대화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수잔 님은 친절함을 지녔던 이가 비단 자신만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아인이 ‘YES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에서 아인의 한국 동료들 또한 이 친절함을 지녔다고 기억했다. 현지 파트너를 기획한 사업을 단순히 실행만 하는 이들로 보았던, 수잔 님이 종전에 경험했던 타 단체들과 달리, 아인은 매 단계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방향을 논의하고 현지 파트너의 의견을 오히려 더 존중하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수잔 님은 아인에 대한 신뢰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쌓을 수 있었고, 한국인 스태프들과도 일을 함께하는 동료이기 이전에 우정을 쌓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수잔 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아인이 케냐에서 만든 건 수잔 님과의 우정만은 아니다. 아인이 케냐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수잔 님이 꿈꾸는 미래인, 더 포용적인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다. 수잔 님은 이 길 위에서 아인과 함께 그의 희망대로 누구나 어디에서 왔건 어떤 인종이건, 모두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받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적확한 도구,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정확한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 도구들은 힘이 세다. 수잔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정신이라는 전문성이 담긴 도구를 손에 쥐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이 도구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인의 든든한 친구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인이 'YES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에서
아인의 한국 동료들 또한 이 친절함을 지녔다고 기억했다.
현지 파트너를 기획한 사업을 단순히 실행만 하는 이들로 보았던,
수잔 님이 종전에 경험했던 타 단체들과 달리,
아인은 매 단계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방향을 논의하고
현지 파트너의 의견을 오히려 더 존중하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수잔 님은 아인에 대한 신뢰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쌓을 수 있었고, 한국인 스태프들과도 일을 함께하는
동료이기 이전에 우정을 쌓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모세

Moses



좌절하거나 화내는 대신, 희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작년까지는 르완다 대사관에서 일했고,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일을 하고, 최근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IT 전공을 위해 2016년 한국으로 유학 와 한국에서 지낸 지 8년이 된, 르완다에서 온 29세의 사람. 자기소개를 부탁하는 인터뷰 첫 질문에 익숙하다는 듯이 다양한 키워드를 쏟아내는 것으로 모세(Moses) 님과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어린 시절부터 IT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IT를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모세 님은, 인터넷으로 유학갈 나라를 찾아보다가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많이 알지 못한 채 혈혈단신 한국으로 온 모세 님은 모든 것을 0부터 시작해야 했다. 자칫 의기소침해질 법도 한데, 때마침 방영이 시작된 2016년 <비정상회담>이 모세에게 한국 생활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주었다. 바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인 되어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는 것. 가나의 '비정상'으로 출연한 샘 오취리(Sam Okyere)를 보면서 '가나에서 온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르완다에서 온 사람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다.

아쉽게도 한국어가 조금씩 익어 가던 무렵 <비정상회담>의 폐지로 꿈을 이룰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갈고닦아 온 덕에 2020년 방영된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데뷔'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모세 님은 <백종원 클라쓰>(2021), <현지인 브리핑, 지금 우리 나라는>(2023)을 통해 엔터테이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9월에는 '조이필리아(Joyfillia)'라는 그래픽 티셔츠 중심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다.

9월, 이달의 인플루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 | gincon 후원 | 국회사무처,



그가 다양한 분야로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힘은 뭘까? 인터뷰 사전 질문에서 모세 님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나 의미를 한 단어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일관성(Consistency)이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한 단어’로 희망(Hope)을 꼽았다. 단어는 달라졌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게 들렸다. 삶에서 겪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좋아질 거란 희망을 품는 것에서 삶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와 한결같은 자세가 비롯되는 것일테니. 모세 님은 실패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희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엔터테이너로서 주류 채널(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송할 때, 한국 유학을 고민·희망하거나 이미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팁을 전수하는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릴 때, 그리고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다소 차별적이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챌린지가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듯했다. 대중을 향한 그의 인사말은 ‘우간다도 아니고 와칸다도 아니고 르완다에서 온 모세입니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설명해

야 함을 뜻한다. 우간다와 와칸다는 알고 르완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르완다를 계속 설명해내야 하는 일은 지리하고 짜증스러운 법도 한데, 모세 님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 사람들이 우간다도 알고, 와칸다도 아는데 르완다는 잘 몰라요. 아니면 콩고도 알고 탄자니아도 알고 케냐도 알고, 르완다 주변 국가는 아는데 르완다만 몰라. 그럼 그럴 때 화내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군.’이라고 생각해요. 우간다나 와칸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도 불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랑 대화를 이어 나가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친근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희망과 일관적인 태도를 중요시하는 모세 님의 캐릭터가 확연히 드러나는 말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터, 실은 모세 님이 <비정상회담>에 출연하고 싶은 이유도 한국 사회에 턱없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와 아프리카를 향한 오해의 만연 때문이었다.

“TV 쇼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유명해지면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르완다)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이 흥미(interest)로 시작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알고 싶어서거나 좋아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면 흥미조차 가질 수 없고, 모르고 흥미가 없으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2021년 모세 님은 한-아프리카 관련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 사람도 아닌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알게 됐다. 그때가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모세 님이 르완다 대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아인의 허성용 대표가 르완다 대사를 만나러 대사관을 찾으려 연이 이어졌다. 이후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이하 ‘서아페’)을 홍보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

인과의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엮어갔다. 최근 2023 서아페에서는 아프리카 갓 텔런트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모세 님은 서아페가 아프리카의 다양한 반찬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행사라고 말한다. 한국인들에게 김치만 있는 줄 알았던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얼마나 다양한 반찬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진 전형적인 이미지나 키워드 외에 아프리카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음악, 춤, 패션, 문화)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말하며 아인이 한국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인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나 르완다를 알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을 느끼는 건 없을까? 이 질문에 모세 님은 다시 한번 희망으로 답했다.

“르완다를 한국에서 알리는 게 도전적이라고(challenging) 느낄 때가 있지만, 곤란(hardship)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 자극적인 부분을 주로 소비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위험하다’, ‘더럽다’, ‘소매치기 당했다’ 같은. 근데 그럴 때 언짢게 여기기보다는, ‘아프리카 갔다 온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거나, 자극적인 거 하다가 어느 날은 ‘사실은 아프리카가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때가 나중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이나 한국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모든 것이 흥미로부터 시작되니까, TV에서 본 것 외에 다른 부분들에도 마음을 열고(open-minded)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TV에서 나오는 것 대부분이 UN 또는 UNICEF 같은 곳에서 돕자고 소개하는 내용인데, 돕는 건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이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

를 보면서도 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유하고 개별적인 특징이라고 이해했으면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김치를 좋아하거나 매운 걸 잘 먹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저의 경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악수하지 않는 게 처음에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악수하는 것이 예의인 문화에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다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사부터 처음 하는 것처럼 0(zero)에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아프리카의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국인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바라봐 주세요. 친구를 만들고, 삶을 즐기고.”

관심을 두는 것, 친구가 되는 것. 지난 10년 간 아인이 쪽 해오려던 것.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져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모세 님의 태도처럼 희망을 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고, 화내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해하며 다양한 반찬을 꺼내놓다 보면 어느 날은 ‘사실은 아프리카가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지 않을까. 작고도 큰 희망을 품게 된다.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간담회



“

르완다를 한국에서 알리는 게 도전적이라고(challenging) 느낄 때가 있지만, 곤란(hardship)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 자극적인 부분을 주로 소비하잖아요.

뭘 이룰테면 ‘위험하다’, ‘더럽다’, ‘소매치기 당했다’ 같은.

근데 그럴 때 언짢게 여기기보다는, ‘아프리카 갔다 온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거나, 자극적인 거 하다가 어느 날은 ‘사실은 아프리카가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때가 나중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

| 허성용 |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

2013년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시작한 아프리카인사이트(이하 ‘아인’)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하루의 시간이 쌓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채워진 10년이기에 참 값지고 소중합니다. 짧은 지면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는 함께 이 길을 걸어온 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입니다. 우리 단체가 늘 이야기 하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는 우분투 정신 처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모든 분들이 함께 기적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각 사람에게 또 아인과 함께 하는 분들에게도 귀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 단체는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그 법적인 지위가 달라졌고, 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그 형태와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치열한 고민과 노력 속에 만들어진 조각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서로에게 축하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의 조직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격체 같아 참으로 신기하게 때마다 새로운 고민과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걸어온 10년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바뀌지 않아야 하는 아인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동시에 고민해봅니다.

고민 끝에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는 자리는 단체를 처음 시작할 때 서툴지만 용기 있게 다짐했던 ‘핵심가치’입니다. 크지 않은 사무국에 둘러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 순간마다 우리는 깊이 고민했고,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 기회를 맞이하거나 어려움에 봉착 할 때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고, 무엇이 맞는지 헛갈려 헤매며 비싼 수업료도 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아인은 이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인의 가족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깨달은 교훈은 ‘가치’를 한결 같이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쌓이고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더욱 잃어버리기 쉬워, 지금의 우리처럼 하얀 백지가 아니라 10년 동안 쌓아온 밑 그림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 갈 때 더 깊게 고민하고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고민과 화두를 혼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길을 바라보는 오늘.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 갈 것인가에 대해 잠시 숨을 고르며 살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인의 홈페이지에 있는 핵심가치에는 ‘사람과 현장중심’, ‘관계와 과정중심’, ‘지속가능성’, ‘연대와 협력’, ‘실천하는 삶’ 이라는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

‘사람’이라는 두 글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원래는 한 뿌리로 이어져있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 ‘사람’이 귀하고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아인의 정체성과 목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형태로 아인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소중한 ‘사람’,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인이 10살을 넘어 앞으로 계속 더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그 시간 동안, 때로 실수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래 지켜봐주시고 곁에서 함께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점일 수 없겠지만 그 과정을 함께 보셨고, 경험하셨고, 직접 만들어오신 분들이 곁에 있어주신다면 아인이 분명 가야하는 제대로 된 방향과 모습으로 더욱 건강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이번 10주년 에세이집의 부제처럼 아인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계신 그 곳에서 가장 특별한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기린(허성용 대표)을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절마다 다른 아인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아인에 많이 오셔서 우리의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를 지키며 동행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 11. 30.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 허성용

아프리카인사이트

10주년 기념 에세이집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

출간일	초판 1쇄 2023년 11월 30일
글쓴이	강예린, 안지혜, 우승훈
편집	김지은
디자인	김수영
펴낸이	최동환
펴낸곳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21, 예원빌딩 302호
연락처	02-6082-0801
이메일	contact@africainsight.org
홈페이지	africainsight.org

* 본 에세이집은 2023 인문실험 공모전(시민협업형) 후원을 통해 제작 되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 책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에 있습니다.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인사이트

10 주 년
기 념
에세이집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아인은 우리의 자랑